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147억원 증액 편성 일자리 확대·안전인프라 등 생활 SOC 증점

전북도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본예산 대비 5,147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지난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생활SOC를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역대 추경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편성 시기도 지난해 1회추경 7월보다 3개월이나 빠르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67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13억원(8.0%) 증가한 6조 803억원, 특별회계는 234억원(3.9%) 증가한 6,185억원, 기금 400(4.8%)억원이 증가한 8,689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4,513억원 중 일자리와 경제체질 개선에 911억원(20.2%), 생활SOC 1,084억원(24%) 등을 반영했다.

최근 경기침체, 고용감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6,400명 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612억원을 투자한다.

청년의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전공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제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63억원을 반영, 892명을 지원한다.

'전북 청년 단기인턴 사업'에 1억4천만원을 반영, 공공기관에서 일부 시행했던 청년인턴 사업을 기업체에 확대하여 일자리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공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에는 퇴직자와 가족, 취약계층 등 900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비 4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 시군으로 대상으로 '전북 새희망 근로사업'에 대비 44억원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 1,400명을 창출한다.

'청년 창업 드림스퀘어 구축' 사업

에 6억원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

농촌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6억원,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2억원 등을 반영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8억원, '술기구나 패트roller 운영' 3억원, '신중년 인력양성사업' 1억5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예정자 330명에 대한 교육훈련,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등 28억원을 반영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299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부품기업의 완성차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철회된 자동차업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103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및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에 17억원을 반영했다.

의료기기 핵심부품 소재를 국산화하고 기술장벽을 넘기 위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에 1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의 도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보조금 322억원을 반영했다.

도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악취 저감대책으로 144억원을 반영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이 많은 승합자동차 폐차에 113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노후경유차 13만5천대 중 매년 3천대 정도를 반영

해 왔던 것을 이번에 1만대로 확대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연가스차량 구입 1억8천만원, 전기버스 4억5천만원 등 교통오염물질 저감사업을 반영했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사업 9천만원, 대기오염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 7천만원을 반영했다.

축산 악취 심각지역 양돈농가 악취저감지원 4억원, 악취저감 탈취탑 설치지원사업 2억원 등 악취저감대책도 12억원 편성했다.

도민 삶을 풍성하게 할 문화 체육 기반시설확충 사업에 25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256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지역은 도시보다 높은 취사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을 반영,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 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 고창, 부안 어항 정주여건 개선에 160억원이 지원된다.

도내 상수도 노후관이 5,692km에 달하고 누수율이 20.8%로 상수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상수도 318km 정비 5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마을민들기 12억원, 마을단위 종합개발 6억원 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반영했다.

재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월 9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원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임규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를 중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사전투표에 출선 유권자들 4.3 전주시 라선거구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29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4.3 보궐선거 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군산공항, 제주노선 증편... 탑승객 증가로 활성화 기대

매일 3회 왕복 연중 운항 항공수요 확대 상황도 해결

전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22일 군산~제주간 운항을 당초 1일 1편에서 1일 2편으로 증편운항 협약을 맺고, 군산~제주간 항공편이 지난 31일부터 하루에 대한항공 1편, 이스타항공 2편 등 총 3편이 운항하게 된다. 이렇듯, 군산~제주간 항공기 수요 증편과 매일 왕복 3회 운항체제로 바뀐다. 군산공항 항공수요 확대 필요성에 따른 문제 해결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큰 탄력이 예상된다.

증편운항에 따른 지난 31일 이스타항공 오전, 오후 운항 예약현황(3. 28

일 기준)을 보면 군산→제주간은 89~93%, 제주→군산은 83~97%의 예약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발 당일에는 95%이상 탑승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공항은 연간이용객이 2018년에는 29만명, 탑승율 86%였으나, 금년 연중 증편운항으로 2019년에는 35만명, 탑승율 90%이상 항공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이번 증편운항을 계기로 항공편 부족으로 제주도 방문이나 여행 시 제주,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던 도민들이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하는 등 항공 편의제공과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공항 증편 운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

항의 항공수요를 뒷받침 하는 등 향후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시 타당성 및 당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산공항 증편운항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당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신항만, 철도(새만금항~대야철도)와 함께 명실상부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완성으로 동북아 물류 수송에서 우위 선점 가능하며, 상하이와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의 물류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복합 물류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중소기업장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

전북도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환경기술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등 자체 환경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 유관기관·환경기술인·학계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으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사업장과 1:1로 매칭, 사업장 스

스로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더 불어 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무료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에는 도내 58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이 추진되며, 이중 중소기업장 33개소에는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 진단 및 개선방법,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를 위한 적정 운전 요령 등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장

25개소에는 배출업소 준수사항, 단순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전문가, 사업장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이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 오리엔테이션과 사업장과의 대면식도 실시되며, 대면식에서는 1:1로 매칭된 사업장별 애로사항, 기술지원 방향, 방문일정 등을 협의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전국 최초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 보급

도 - 완주군 - 가온셀 업무협약 체결... 건설기계 · 수소경제 선도 · 부산산업 동반성장 기대

전북도는 지난 29일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사업'을 위해 완주군, (주)가온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북도 유희호 혁신성장산업국장, 완주군 문원영 부군수, (주)가온셀 장성용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가온셀은 기술지원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사



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파워팩)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북을 시작으로 서울시, 울산시 등에서 시범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수소지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중이다.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는 매연이 없고, 1회 연료충전(5분) 8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